



高石 김 성 철
한국고분자학회 제18대 회장
KAIST 명예교수

고분자학회의 행운아

2012년 10월 한국 고분자학회 추계 총회 때 장태현 회장에게서 공로상을 받았다. 학회 로고가 순금으로 장식된 귀중한 공로패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학회에 감사패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나의 업적, 이력의 대부분이 고분자학회를 통해 얻어졌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내가 학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행운아이기 때문이다.

1975년 미국에서 IPN(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8월 귀국하였는데 이때에는 고분자 분야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적었고 또 IPN 연구 결과가 1976, 77년 *Macromolecules* 에 네 편이 발표되어 많은 분들에게서 IPN 연구 업적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덕택에 귀국하자마자 조의환, 노익삼, 김정엽 교수가 주도하는 고분자 연구 토론회에 제일 젊은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 토론회가 추후 한국 고분자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모임이 되어 얼마결에 고분자학회 창립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발기인은 모두 57명인데 내가 31세의 최연소 발기인이 되었다. 1976년 10월 7일 오후 3시 공업시험원 도서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졌는데 모두 35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하신 발기인 중 산업계 발기인을 빼면 김계용, 김노수, 김성철, 김은영, 김원택, 김점식, 김정엽, 노익삼, 마석일, 맹기석, 백남철, 변형직, 성좌경, 심정섭, 안태완, 원영무, 이동주, 이진우, 이학기, 장성봉, 정기현, 조의환, 진정일, 최규석, 최남석, 한만정, 한정련, 허동섭, 홍성일 교수 등으로 후에 학회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분들이다. 그 다음 날 10월 8일에는 과학원 강당에서 오전 10시 창립 총회를 가졌고 초대 회장에 성좌경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을 모셨다. 한국화학연구원도 1976년 설립되어 올해 고분자학회와 같이 40주년을 기념하는데 초대 원장, 학회장이 같은 분이다.

나는 초대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편집간사: 조의환, 편집위원 김정엽, 진정일, 김성철) 고분자 학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2대에는 기획이사, 3대 조직이사, 5대 총무이사, 8대 전무이사, 7대 총청지부장, 15대 감사, 16대 부회장, 17대 수석부회장, 18대 회장을 거치는 동안 1976년부터 2001년까지 25년간 고분자학회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폴리머 1권 1호는 1977년 3월에 발간되었는데 현 학술지 “폴리머”와 기술지 “고분자 과학과 기술”을 합친 종합 학회지이다. 1권 1호에 실린 1977년도 예산은 총 9백만 원으로 이 중 회지 발간비가 1회 50만 원 10회 발간 5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반을 넘는다. 학회 회비는 3천 원, 년 간 인건비 51만 원, 외국인 학자 초청비로 30만 원이 지출에 잡혀 있다. 또 논문 심사료는 편당 3천 원으로 정했다. 개인 찬조비도 받았는데 창립 후 1977년 1월까지 1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총 22분이 64만 원의 찬조금을 내셨다. 회원은 1977년 1월 현재 정회원 278명, 종신회원 25명, 학생회원 38명 총 341명이다. 노익삼 간사장께서는 인사말에서 정회원 500명 이상, 년 간 세미나, 강연회 4회 이상 개최를 목표로 한다고 쓰셨다.

학회 창립 초기에는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내에 학회 사무실을 두었으나 1977년 8월 한국프라스틱 공업 협동조합 한기대 이사장님의 후의로 중구 쌍림동에 있는 한국프라스틱화관 5층에 무료로 사무실

을 얻게 되었다. 1986년 총무이사로 있을 때 성지건설에서 현 해천빌딩 601호를 구입하였고 전무이사로 있던 1991년 마침 옆방의 602호가 매물로 나와 현 학회 사무실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플라스틱회관 1층에는 버드나무집이라는 닭 백숙을 전문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매주 전무, 총무, 기획, 조직, 재무, 편집 여섯 분의 간사가 모여 학회 일을 하다 보니 저녁을 주로 버드나무 집에 예약할 때가 많았다. 한국고분자학회로 예약하면 어김없이 고분자가 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럼 당시 인기 있던 만담가로 “장소팔과 고춘자”가 유명하였기에 농담으로 “고분자는 고춘자 동생이에요”라고 대답하는데 내가 최근 한림원 석학강좌로 고등학교에서 고분자 재료 강의할 때 써 먹는 고분자의 정의 중 하나이다.

1979년 고분자학회 2대 전무이사를 김은영 박사가 맡으셨는데 젊은 나를 기획이사로 임명하셔서 고분자학회 업무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Detroit 대학에서는 매년 여름 방학에 Polymer Conference라고 하여 산업계에서 고분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고분자 기초 강의를 하는데 산업계에서 매우 반응이 좋아서 내가 한국고분자학회에서도 하면 어떨까 의견을 내어 제1회 고분자 하계대학이 1979년 8월 28일-31일 3박 4일 일정으로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하계대학 등록비는 회원 16만 원, 비회원 20만 원을 받아 꽤 비싼 편이었고 누군가가 관광호텔에서 학회 호화 세미나를 한다고 국무 총리실에 투서하여 그 해 연말 특별감사를 받을 뻔 했다. 그러나 숙박비가 비싸고 간담회도 2회 개최하여 학회에 별 이익이 남지 않아 그것으로 잘 해명이 되었다. 이 하계대학은 현재의 고분자 아카데미가 되었다. 또 김은영 박사님 모교인 독일 Darmstadt 대학의 플라스틱 연구소에서 매년 개최하는 플라스틱의 정성 분석 세미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마침 KIST에 와 계시던 Darmstadt에서 학위하신 이덕원 박사가 주관이 되어 “플라스틱의 간단한 식별법”이라는 세미나가 1979년 4월 11일, 12일 양일간 아주대에서 개최되었다. 학회에서 시도한 최초의 workshop이었고 여기에도 산업계 회원의 호응이 높았다. 이 세미나는 후일 “고분자 기기분석 세미나”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산업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고분자 학회에서 개설하게 되어 대한 화학회나 한국 화공학회에 비해 산업계의 참여가 높았고 산학협동이 잘되고 산업계 후원이 많은 학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개최된 제1회 한·일 고분자 공동 심포지엄은 기획이사로서 그 준비, 진행을 내가 맡았고 한국에서는 조의환, 최남석, 김영우 박사와 함께 30대의 약관으로 한국 측 초청강연자의 한사람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1979년 10월 23일부터 KIST 강당에서 개최되었고 강연회가 끝난 후 25일 일본 측 참가자들을 모시고 경주 관광 가이드를 맡게 되었다.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져 부산의 김해 공항이 폐쇄되었으나 일본 측 참가자들은 27일 토요일 손님이 끊어진 부산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28일 다시 열린 김해 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하였다, 동경농공대의 미야따 교수는 10. 26 사태를 실은 한국 신문을 아직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 이때 만난 분이 일본 고분자학회 회장 경도대 나카지마 교수, 동경농공대 미야따 교수, 일본고분자학회 사무총장 다카히꼬씨이다. 이 세분의 도움으로 한국고분자학회가 일본고분자학회와 향후 긴밀한 교류를 하게 되었고 나로서는 이 분들을 통해 외국의 저명 고분자 학자들과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제2회 한·일 고분자 공동 심포지엄은 1980년 10월 20일-22일 일본 경도대학에서 개최되었고 제1회, 2회 한·일 고분자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고분자학회와 일본고분자학회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나카지마 교수는 IUPAC 고분자 분과의 Titular Member로 1986년 고분자 구조 물성 동아시아 연구회를 창설하면서 나를 한국 측 위원으로 초청하였다. 이 연구회의 초대회장은 나카지마 교수(1986-92), 2대는 중국의 화학연구소 소장인 Qian박사(1993-95), 3대는 나카지마 교수의 제자인 경도대 마스다 교수(1996-99), 그리고 마스다 교수의 추천으로 4대 회장(2000-04)을 내가 맡았다. 79년 만난 나카지마 교수와의 인연은 그 제자 마스다 교수까지 이어져 마스다 교수가 국제 고분자 가공학회(PPS) 아시아 최초 회장인 4대 회장을 역임하고 다음 아시아계 회장 차례인 7대 회장을 일본의 장성한 학자들을 제치고 한국인인 나를 추천하여 첫 한국인 PPS 회장으로 1995년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IUPAC 고분자 분과에는 분과 회장 포함 Titular Member가 모두 10명인데 나카지마 교수가 임기를 마치면서 마스다 교수를 추천하였고 다시 마스다 교수는 1999년 그 임기를 마치면서 나를 Titular Member로 추천하여 나의 IUPAC 고분자 분과 활동이 시작되었다. IUPAC 고분자 분과 회장은 임기 4년으로 차기회장으로 선출되면 차기회장 4년 회장 4년 모두 8년간 고분자 분과위에 참여한다. 회장은 4년 마다 미주, 구라파, 아시아로 돌아가면서 선출하는데 2001년 Stepto 분과 회장 후임으로 아시아계 차기 회장 선출을 할 때 고분자 용어 subcommittee에서는 고려대 진정일 교수를, 고분자 교육 subcommittee에서는 일본의 아베 교수, 고분자 구조 물성 subcommittee에서는 나를 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하여 한국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었고 내가 곧 후보를 사퇴하여 진정일 교수가 분과회장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진교수는 이후 IUPAC 회장으로 당선되어 고분자학회 창립 초기에 IUPAC 고분자 분과에 한국 위원이 없어서 일본 측 위원의 힘을 빌렸던 일을 생각하면 금석지감이 든다.

동경농공대 미야따 교수와는 제1회 한일 공동심포지엄 이후 가까워 졌고 나와 가장 친한 일본 교수이다. 일본 고분자 학회도 총회 후 간담회가 있는데 주로 원로교수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젊은 30대 교수들은 “와까테(若手; 일본어로 젊은이)”라고 하여 따로 모임을 갖는다. 미야따 교수와 동년배의 학자들은 1980년대 당시 40대여서 “와까테”도 졸업하고 간담회에 가진 아직 젊어서 “와까테 OB”라고 간담회 시간에 또 다른 모임을 갖는데 미야따 교수의 소개로 그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가지야마, 니시, 노세, 이노우에, 하시모토, 사사베, 즈지타, 가와구치, 가와카미 등 동년배의 유명 고분자 학자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1985년에 동경공대 노세 교수 실험실에 연구원가 가는 계기가 되었다. 연가 중 일-미 고분자 공동 심포지엄이 경도대에서 개최되었는데 일본학회 다카히코 사무총장과 미야따 교수의 천거로 한국인인 내가 Session Chairman을 맡게 되었다. 일-미 공동 고분자 심포지엄의 간담회장에서 IUPAC 고분자 분과 차기회장인 경도대 사에구사 교수로 부터 한국에서 IUPAC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게 어떠한 제의를 받았다. 1986년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의 첫 국제 심포지엄인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Functional Polymers를 1989년 6월 26-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안태완 교수가 조직위원장, 내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소련의 초청 연사는 일본 고분자 학회의 다카히코씨가 소개하여 Plate, Kavanov 교수를 초청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소련과 공식 수교가 되지 않아 이 두 분이 동경의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았고 서울에는 소련 무역협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수시로 보고하고 있었다. 내가 간담회 후 예정에 없이 두 분을 한 술집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밤에 잘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무역협회에 호출되어 상당히 곤란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았다. IUPAC 국제 심포지엄 기념품으로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으로 만든 작은 손가방을 8천 원에 구매하여 참가자들에게 드렸는데 그 때만 해도 이 가방이 인기가 많아서 호텔의 발표 회장 안에 둔 가방이 분실되기도 하였다. 내가 기념으로 새 가방 한 개를 내 사무실 캐비닛에

두었는데 26년이 된 2015년 KAIST 사무실을 비워 주면서 꺼내 보니 외피의 폴리우레탄이 완전 가수 분해 되어 끈적끈적한 액상으로 변해 있었다. 요새 고분자의 화학 노화의 대표적 예로, 또 분자량이 떨어지면서 글라스 전이 온도도 떨어진다는 좋은 예로 쓰고 있다. 1989년의 첫 IUPAC 심포지엄은 국내에서 500여 명, 외국에서 200여 명 참가하여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때 IUPAC 고분자 분과회 회장이신 사에구사 교수에게 IUPAC Macro의 개최를 요청하였고 아시아 지역은 1996년 북경이 이미 결정되어 2002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1993년 중국이 북경개최를 반납하면서 사에구사 회장의 배려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는 행운을 가졌다. 1996년 8월 4-9일 서울의 KOEX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서 고분자 학술대회의 꽃인 IUPAC Macro가 외국 참가자 700명 등 총 1,500명이 참석하는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되었다. 2006년 10월 11일-13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도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때 예는 진정한 교수가 IUPAC 고분자 분과 회장, 나와 장태현 교수가 Titular Member로 선출되어 있어서 회장 포함 전체 10인의 Titular Member 중 세 사람이 한국인인 때이어서 자력으로 개최 승인을 받았다.

일본고분자학회의 다카히고 사무총장과와 관계도 다카히고씨가 별세하시기 전까지 매우 가까워서 한국의 국제 학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1986년 일본 경도에서 IUPAC Macro 심포지엄이 열릴 때, 일본, 미국, 호주 3국이 환태평양 고분자 연합체의 결성을 의논하고 있었고 그 준비 내용을 다카히고 씨에게 전해 들어서 1987년 연합체가 결성되었을 때 한국도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한국 경주에서 1997년 10월 26일-29일 제5회 환태평양 고분자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정엽박사가 조직위원장, 내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2009년 환태평양 고분자 연합회 회장을 맡아 한국에서 2011년 11월 13일-17일 다시 제12회 환태평양 고분자 학술회의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고 27개국 900여 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KAIST 정년 퇴임 후 2013년부터 서예를 시작하였다. 서예 작품을 그동안 신세 진 분들과 졸업생들에게 선물하는데 아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이 아호를 지어 주지만 나는 내가 직접 짓기로 하였다. 금년 봄 총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우리 집의 3대 독자로 태어나 어릴 적에는 혹시 아플까 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돌아”라고 불리었고 내 생활의 대부분이 고분자 교육과 연구로 바쳐진 점을 생각하여 “고분자를 전공하는 돌”이란 뜻으로 “高石”이라고 지었다.

올해가 고분자학회 창립 40주년이라 하나 창립 당시의 일들이 아직 생생하다. 창립 10주년 특집 호에는 학회의 산학협동 세미나 약사를 썼고, 20주년 특집호에는 “고분자 물성분야의 국내연구동향”과 “고분자학회와 나”라는 회고문을 썼고, 30주년 특집호에는 “고분자학회의 국제 협력 회고”를 썼다. 이번 40주년 특집호에도 기고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이번에는 학회 창립, 산학 협동, 국제 협력에 관한 뒷얘기 들을 회고했다.

다시 한국고분자 학회에 감사드리고 학회와의 인연을 맺게 해 주신 고 조의환 교수, 김은영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KAIST 명예교수(제18대 회장) 高石 김 성 철